

HRI 체어퍼슨노트

# CHAIRPERSON NOTE

2011.06.07 (통권351호)



## 경제이슈

그리스 신용등급 3단계 강등

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OECD의 1.4배

## 경영노트

현명한 리더가 주목받는 시대

## 사회 트렌드

DREAM, 2011 상반기 유통 키워드

## 저널 브리프

불행 퇴치에 나선 사회적 기업들

## 洗心錄

Helper's High (봉사자의 희열)

□ 그리스 신용등급 3단계 강등

- 6월 1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'B1'에서 'Caa1'로 3단계 하향 조정
  -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: 무디스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Caa1으로 강등하였으며 등급전망도 '부정적'으로 매겨 추가 등급 강등 가능성도 존재. Caa1 레벨은 향후 5년 안에 디폴트(채무불이행) 가능성이 50%라는 의미
  - 신용등급 강등 배경 : 그리스의 불확실한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적자 목표달성 실패에 따라 신용등급이 강등됨
  - 주요국 증시 급락 : 그리스 신용 등급 강등의 여파로 1일 미국 다우산 업지수는 전일대비 2.2% 급락하였으며 영국,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이틀연속 1~2% 하락
- 29일 예정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안(120억 유로) 승인 여부가 향후 그리스 및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

□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OECD의 1.4배

- 2011년 4월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.2%로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으며 OECD 평균인 2.9%를 크게 상회
  - 배경 :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식품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음
  - 식품물가 : 한국은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 및 과일가격, 음료가격의 높은 물가수준으로 식품물가는 7.6% 상승하여 OECD 평균인 3.1%를 2.5배 상회
  - 근원물가 : 한국은 수요압력 확대와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근원물가는 2.7% 상승하여 OECD 평균인 1.6%의 1.7배에 이름
- 한국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많아 당분간 물가불안은 지속될 전망

□ 현명한 리더가 주목받는 시대<sup>1)</sup>

- 과거의 경영의사결정이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항이었다면 오늘날은 지혜를 통해 새로운 답을 찾는 주관식 문항임
  -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리더들은 예측 가능한 범위가 더욱 제한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
  - 또한 기업이 지식 기반, 가치 창조 경영으로 진화하면서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의 사용 방법,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중요해짐
- 이제 리더는 철학자이자 장군, 정치가, 소설가 등 다양한 능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는 조직원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함

< 현명한 리더의 6가지 특징 >

	내 용
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영의사결정 시 경쟁 우위 확보나 이익 창출, 주주 가치의 창출 이전에 일반적인 도덕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판단</li> <li>• 이 같은 판단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패의 경험, 교훈의 기록과 공유, 완벽에 대한 추구, 인문학적 소양 등이 필요</li> </ul>
사소함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소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이면의 본질을 파악하고 보편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</li> <li>• Ratan Tata(타타그룹 회장)는 비오는 날 스쿠터가 위험하게 달리는 것을 보고 최저소득층도 살 수 있는 저가 자동차의 수요를 발견</li> </ul>
가치와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든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직 내에 동호회, 스터디 그룹, 바(Bar) 등을 만들어 조직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가치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</li> <li>• 우즈다 쇼우에이(미츠이 물산 회장)는 매달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원탁 회의를 통해 조직의 현재 정보와 비전을 공유</li> </ul>
핵심 전달에 능숙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 사례, 비유, 경험 등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</li> <li>• 마틴 루터 킹과 스티브 잡스의 연설<sup>2)</sup>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이해하도록 핵심을 전달했기 때문</li> </ul>
인간의 이성, 본능 모두를 이해한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성격,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성적으로는 물론 감정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</li> <li>• 야나이 다다시(유니클로 회장)는 자기 회사의 차세대 리더들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인간의 이성과 본능,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지목</li> </ul>
조직원들의 지혜를 중요시한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신의 리더십과 권위를 가능한 조직에 분배하고 직원들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</li> <li>• 스즈키 토시후미(세븐&amp;아이 홀딩스 회장)는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눈과 마음을 갖는 것이라 강조</li> </ul>

1) 본 자료는 ‘The Big Idea: The Wise Leader(Harvard Management Review, 2011. 5)’를 요약 정리함  
 2) 마틴 루터 킹 ‘I Have a Dream’ 연설(1963년 링컨기념관 광장), 스티브 잡스 ‘Stay Hungry, Stay Foolish’ 연설(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)

□ DREAM, 2011 상반기 유통 키워드<sup>3)</sup>

■ 롯데마트가 2011년 상반기 유통 키워드를 DREAM으로 선정

① Disease : 구제역 영향으로 바뀐 소비 트렌드

- 작년 말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며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돼, 소고기  
기와 돼지고기의 소비 트렌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
- 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처분된 규모가 작았던 소는 가격 하락, 소  
비 진작 행사 등으로 매출이 작년보다 30% 신장.
- 반면 돼지는 살처분된 규모가 너무 커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가격이  
높아지면서 ‘돼지고기’ 매출은 작년보다 7.4% 가량 감소

② Radioactivity :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우려 고조

-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원전 피해가 확대, 방사능에  
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‘미역, 다시마’ 매출이 6월 현재까지 작년보다  
30% 가량 증가했고, 지진 이후 한달 동안은 매출이 2배 가량 급증
- ‘소금’도 같은 현상이 벌어져 매출이 6월 현재까지 50% 가량 증가했  
고, 지진 발생 이후 한 달 동안은 2.3배 가량 급증

③ Enormous : 크고 저렴한 상품 인기

- 유통업체별로 피자, 버거, 도넛 등에서도 거대한 크기와 저렴한 가격을  
강조하는 사례가 많았음
- 기존 두부보다 크기가 3배 가량 큰 ‘손큰 두부’, 일반 오렌지보다 20%  
큰 ‘킹오렌지’, 일반 팝콘보다 1.7배 정도 되는 ‘빅빅 팝콘’ 등이 인기

④ Abroad : 고물가에 값싼 상품 찾아 해외로

- 고물가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찾기 위해 유통업  
체는 해외소싱 상품에 주목
- 특히, 수산물의 경우는 어획량이 급감해 국내산 가격이 높아지고, 물량  
도 구하기 힘들어지자 가격이 저렴하고, 품질이 좋은 수입 수산물에  
대한 수요가 높아짐

⑤ Mutual growth : 동반성장 화두가 되다

- 각 기업들도 우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  
고, 관련 상품을 선보임

3) “100세 시대 축복 아닌 재앙 40%”(매일경제신문, 2011.5.25) 참조

□ 불행 퇴치에 나선 사회적 기업들<sup>4)</sup>

■ 세상의 빈곤과 불행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의 사회적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

① 형겁으로 세상을 바꾸는 ‘군제이(GOONJ)’

- ‘군제이’의 굽타 대표는 1992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옷이 없어 시체를 덮고 자는 소녀를 만나 큰 충격을 받고 ‘군제이’를 설립
- ‘군제이’에서는 매달 형겁을 모아 필요한 이들에게 일정한 노동을 맡기고 그 대가로 추위를 막기 위한 옷과 이불을 제공해왔음
- ‘군제이’를 통해 지난 12년간 많은 인도인들이 입을 옷을 제공받음

② 모두를 위한 밥상을 제공하는 ‘테이블 포 투(TFT)’

- 세계 인구 69억 명 가운데 기아로 허덕이는 인구가 10억 명에 달하며 비만으로 고생하는 인구도 10억 명이나 됨
- ‘TFT’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선진국 사람들에게 칼로리가 낮은 식단을 제공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인구에 ‘또 하나의 식탁’을 제공함
- 이런 방식으로 ‘TFT’는 지난 3년간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512만 2,655끼니를 제공해옴

③ ‘착한 여행’을 선도하는 ‘인데콘·CCBEN’

- 1995년 설립된 ‘인데콘’과 2002년 출범한 ‘CCBEN’은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현지인과의 대면을 확대한 ‘착한 여행’ 상품을 개발·판매
- 이들이 만든 코스에 참여한 여행객들은 현지인을 만나 신선한 재료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문화·생태 명소의 보존 활동에 참여함
- 이 여행 프로그램은 현지인 직원 채용, 지역 농산물 활용, 관광수입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

④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는 ‘리모션 디자인(remotion designs)’

- 세계 절단 장애인의 80%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비용 때문에 의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
- ‘리모션 디자인’은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을 위해 저렴하고 튼튼한 의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‘리모션 디자인’이 판매하는 인공관절은 개당 20달러 미만으로 인도 장애인 1,300여 명 이상에게 보행의 자유를 안겨주었음

4) 「세상을 바꾸는 아시아 착한 기업들」(시사인, 2010.12.11) 참조

## □ Helper's High (봉사자의 희열)

아무런 대가도 없는 봉사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로운 것일까? “Healing Power of Doing Good”의 저자 앨런 룩스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. 봉사자들이 얻는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. 봉사자의 90% 이상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“Helper's High”(남을 돕는 데서 느끼는 행복감)를 경험했고, 봉사 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,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두 배 반이나 더 장수한다.

보다 흥미로운 점은,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보다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다.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나누는 미소, 포옹, 악수 등 ‘친밀함의 감정 교류’가 뇌의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다. 하지만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 건강에 해롭다.

KBS의 인기 프로그램 <생로병사의 비밀>에서 ‘사랑의 힘’ 편을 방영한 적이 있다. 결론은 장수의 제 1 유전자는 ‘친밀한 관계 유지’라는 것이다.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라고 권했다.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‘없다’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다섯 배 이상 높다고 한다. 사랑을 주고받고,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

1. 진정으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?
2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?
3. 기꺼이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는가?
4.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?

“ 屈己者 能處重, 好勝者 必遇敵 ” (굴기자 능처중, 호승자 필우적)

자기의 뜻을 굽혀서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위에 있게 되고,  
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.

— 명심보감(明心寶鑑), 계성편(戒性篇)